



정부-생산자 합심 희망젓소 나눔운동 추진키로 낙농산업 회복 위해 농가, 정부 모두가 희망 공유

협회는 지난 4월 19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림부를 비롯, 농협중앙회, 한국중축개량협회와 구제역 살처분농가의 재기를 위한 '희망 젓소 나눔운동' 협약식을 가졌다.

당초 협회는 농협중앙회, 축산신문사와 공동으로 희망젓소나눔운동본부를 발족(3.25)하여 5천두를 목표로 운동을 추진

중으로, 민관이 공조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자는 농식품부의 제안으로 대대적인 젓소 확보에 나서게 되었다. 사업목표는 1만두로, 이를 달성시 전체 매출 착유두수인 1만 9천두(전체 3만6천두 중) 중에서 50% 이상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운동에 대한 참여농가 및 낙농조합에 인센티브로 조사료 할당 관세 물량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조합에 농협 무이자 자금 차등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협회사무실에 희망 젓소 나눔운동본부를 두고 동운동 동참자 접수를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목장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추진 실적이 미진하나, 협회는 동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농가들의 동참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



▲ 희망젓소나눔운동 협약식 장면.
좌측부터 신관우 낙농조합장협의회회장, 남성우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농식품부 유정복 장관, 우리협회 이승호 회장, 이재용 한국중축개량협회회장